

'광주U대회 1주년' 교통문화 개선 전문가 좌담회

U대회 성공 이끈 '3초 배려' 운전습관 2019 세계수영선수권까지 이어가자



▲사회=정후식 편집국장



박남주 광주시 교통국장



유정 광주녹색어머니회장



이성신 교통안전공단본부장



정용식 교통문화연구원장

광주일보는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1주년을 맞아 국제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필수적인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23일 전문가 좌담회를 가졌다.

'교통문화 개선 성과 및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좌담회는 정후식 광주일보 편집국장의 사회로, 박남주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정용식 교통문화연구원장·이성신 교통안전공단 호남본부장·유정 광주녹색어머니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편집자 주>

-광주세계U대회의 성공 개최의 성과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리의 교통문화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박남주 교통건설국장=우리의 교통문화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은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찾는 운전자들로부터 '광주에서 운전하기가 겁이 난다'라고 말을 자주 듣는다.

운전자들은 운전중에 조금의 틀리더라도 생기기 꺼이들고 다른 차의 차선 변경을 막는다. 앞차가 조금이라도 지체한다 싶으면 경적을 울리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다. 앞차가 서행 하는 데는 자신이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한다.

또한,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어도 자동차가 서행을 하거나 멈추는 경우가 드물다.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서야 하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먼저 지나가도록 기다려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약자에 대한 배려와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단다.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 한분 한분의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한다.

▲유정 광주녹색어머니회장=광주 교통문화지수는 17개 시·도 가운데 2015년 8위로 나타났다.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도시의 첫 이미지는 그 도시의 교통문

불법 주차·위협 운전 등 자제... 성숙된 시민의식 필요

지속적 교육·캠페인 통해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화에서 결정된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앞두고 우리의 잘못된 교통문화를 바꾸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성신 교통안전공단 호남본부장=2015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광주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8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교통약자영역인 '스쿨존 불법주차 점유율'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점유율'에서 낮게 나타났다. 교통문화지수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다.

단기적으로는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

-지난해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고효율 저비용의 명품대회로 치러냈다. 교통분야의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어가야 하나?

▲박남주 교통건설국장=우리는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교통대책의 성공요인으로 시민의 참여의식과 시와 자치구, 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가장 주효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다가오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접목하는 물론 지속 발전 및 계승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7월 시·자치구, 광주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관련기관 상시 협의의 기구를 발족하고 교통체계 개선 방안, 교통신호 연동화, 대규모 행사 시 교통대책 등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광주전남지역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8개 교통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약기관별 가지고 있는 지식과 축적된 노하우를 상호 공유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업무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인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줄이기, 배려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폭넓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용식 교통문화연구원장=광주 차량 61만대 시대를 맞아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주택이나 빌라, 원룸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길, 상가주변 앞 도로를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는 많은 시민

들의 불편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물론 각종 사고 발생 시 긴급차량 출동에도 불편을 주어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으로 인한 혜택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강제적인 주차 단속이 아닌 우리 스스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이동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실천수행했으면 한다.

▲이성신 교통안전공단 본부장=모든 운전자들이 '3초 배려'를 실천하길 부탁드린다. 진입하는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3초 후에 진입하고, 양보하는 운전자는 3초 이내에 속도를 줄여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3초 이내에 앞차에 닿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운전한다면 교통사고도 줄고 교통문화도 향상되는 안전한 도시 광주가 될 것으로 믿는다.

▲유정 광주녹색어머니회장=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 개선이 다시 한 번 요구된다. 무엇보다 배려와 양보를 중점 실천과제로 삼아 국제도시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켜기,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하지 않기, 불법주정차와 꼬리물기 않기 등 배려와 양보의 미덕을 시민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정리=채희종기자 chae@



무더위 날린 어린이 오페라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은 최근 하중현홀에서 중근당의 후원으로 한국메세나협회와 그랜드 오페라단이 함께한 키즈오페라(어린이 오페라 음악극) '올러라 소리나무' 공연을 열었다. <조선대병원 제공>

광주시, 1박2일 '남도 시·군 팸투어'

수도권 관광객 대상

광주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수도권 대학 교수, 법조인,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광주와 인접 5개 시·군 팸투어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예향·미향의 도시 광주에서 남도의 매력을 느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화전당을 거점으로 남도의 전통문화예술, 역사, 자연자원 등과 연계하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남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팸투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팸투어는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해 문화전당을 거점으로 도시에서 펼쳐지는 프린지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광주

도심과 인접 5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 투어, 우수한 남도 음식체험 등 남도의 색다른 경험을 맛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일정은 ▲첫째 날 국립5·18민주묘지, 가사문화원의 소재원과 환경당에서 국악체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 대인예술시장을 투어하고 ▲둘째 날에 화산 적벽, 운주사,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등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송재식 광주시 관광진흥과장은 "빛고을 남도 팸투어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자 남도의 관광거점도시로 거듭나도록 광주도심과 인접 5개 시·군을 연계한 남도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친환경자동차 2순환도로로 할인받으세요

내달부터 순차적 통행료 50% ↓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 1600cc 미만)의 통행료 50%가 할인된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개통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 1600cc 미만)에 대해 송암·유덕 업소는 7월1일부터 소태업소는 9월1일부터 통행료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현금 납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이패스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올해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송암업소(3-1구간)와 유덕업소(4구간)는 7월1일 개통하고, 소태업소(1구간)는 9월1일 개통할 예정이다.

감면 방법은 환경친화적자동차 소유자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광주시 도로과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카드 발급비는 무료다. 감면카드 발급 방법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참조.

감면카드는 선별교통카드인 한페이카드로 발급되며, 감면 식별과 결제 기능을 갖춰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이패스 전용차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일반차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박남주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설치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환경친화적자동차 감면을 통해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의지를 다지고 향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평택 토지 매매

초 역세권 송탄역 1분 !!

★ 평택 떠오르는 태양 ★

- ① 삼성전자 120만평
- ② 고덕 신도시개발
- ③ 미군기지 이전
- ④ KTX 개통

- ◎ 토지 - 141평
- ◎ 오피스텔 7개 설계 허가완료 - (즉시 개발 가능)
- ◎ 순수익 - 20억
- ◎ 사정상 급매 - (법인채 인수가능)

※ 개발시 PF(용자) 35억!!

▣ 매가 → 매가 15억 (용 7억가능)

※ 주인직매 010-6632-9700 010-6834-4800

신축 4층 상가원룸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신축 상가원룸 / 3면 대리석 시공 / 코너자리

1층 (커피숍)
2층~3층 (원룸 6개, 투룸2개)
4층 (주택) 35평
화장실2개, 방3개, 다용도실

★ 4층(주택) 거주 하면서 월수익 36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1억5천)

010-6670-9800 010-7384-7800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주)대신경매

▣ 북구 연제동 (상가주택) - 토 84평, 건 155평 - 새한 아파트, 아파트 밀집지역 ▣ 감정가 5억 2천 - 최저가 3억 6천	▣ 서구 양동 (숙박시설) - 토지 174평, 건물 424평 - 1층 (상가 2칸) 2층~5층 (모텔 룸) - 월수익 1,000만 예상 ▣ 감정가 10억 - 최저가 4억8천
▣ 장성 삼서 (3층 상가 건물) - 토 367평, 건 990평 - 1층(식당)2층(사무실) 2층~3층 (주차장) - 상무대 아파트 앞, 식당 밀집지역 ▣ 감정가 15억 - 최저가 4억 3천	▣ 장성 삼서 (의료시설) - 토 342평, 건 1734평 - 상무대 입구, 병원 지역 최적 함 - 전 요양병원 운영 ▣ 감정가 48억 - 최저가 22억
▣ 동구 금남로 5가 (3층상가건물) - 토 171평, 건 250평 (6차선 도로점) - 1층~3층 (상가및사무실) - 주차원비, 금남로 4가, 5가역 2분거리 ▣ 감정가 21억 - 최저가 21억	▣ 북구 풍향동 (원룸) - 토 51평, 건 109평 - 1층~3층 (원룸 12개) - 광주교육대 1분거리, 코너자리 ▣ 감정가 3억 - 최저가 3억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수요일 (오전)

▣ 입학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저권, 가정법원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주)대신경매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62-511-7800 010-6670-9800